동아일보
협찬섹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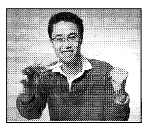
2008 大入수능 대비 문제

문제제공·협찬: 스카이에듀
감수: 교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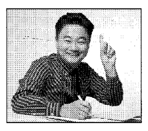
2007년 10월 9일 화요일 D1

1 교시 언어영역

• Premium Final Test 집필진



정지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노량진 전 영역 최다 수강생 보유



이평천
연세대 국문과 졸업
C·T·S 언어·논술 전문가 모임대표

◎ 08' 언어영역 출제 경향

08' 수능 언어영역의 가장 큰 변화는 문항 수 축소에 따른 통합 유형 문제의 출제와 문제 난이도 상승이다. 또한 시험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지문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60문항을 90분에 푸는 것보다 체감적으로 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고 부분 암기식으로 공부했거나 감에 의존해 문제풀이를 해왔던 수험생들은 이번 언어영역에서 크게 고배를 마시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의 경우 EBS나 교과서에 수록된 필수 작품들은 언제든지 출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Premium Final Test Key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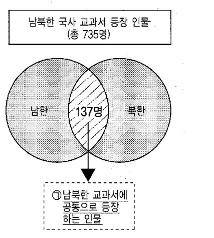
1. '수능 필수 작품' 을 완벽히 정리하자
문학의 경우 작품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및 EBS 수록 작품만 완벽히 마스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중요 작품들 중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별해 문제를 구성하였다.

2. 08' 수능 출제 유형을 익히자
통합유형의 문제 출제와 난이도 높은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08' 수능의 출제 경향에 최적화된 문제를 구성하였다. 출제 유형을 100% 파악한 뒤 문제를 푸는 것이 정답으로 가는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자.

※듣기 문항은 생략합니다.

1. 〈보기1〉과 〈보기2〉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남북한 국사 교과서 등장 인물 (총 735명)
남한
137명
북한
㉠남북한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

〈보기 2〉

	인구	논 면적	밭 면적	쌀 생산량		식량작물 생산량	
				총생산량	300평당	총생산량	300평당
남한(A)	4,808만명	112만 ha	72만 ha	500만 톤	495 kg	567만 톤	4.56 톤
북한(B)	2,271만 명	61만 ha	130만 ha	180만 톤	309 kg	431만 톤	2.70 톤
(B)/(A)	0.47	0.54	1.81	0.36	0.62	0.76	0.59

① 〈보기1〉을 통해 남북 공동작업으로 교과서를 편찬할 경우 들어갈 인물 수는 ㉠정도가 적당하다.
② 〈보기2〉를 통해 북한에는 남한보다 밭이 더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③ 〈보기1〉을 통해서는 역사·사회적인 정보를, 〈보기2〉를 통해서는 경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보기1〉를 통해 남북한의 역사적 관점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2〉를 통해 남한보다는 북한이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 기〉

환경이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환경 파괴의 가공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녹지와 공기는 점점 혼탁해지고 강과 바다는 오염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의 근시안적인 욕심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① ㉠은 중의적 표현이므로 '빠른 속도로' 나 '급속하게' 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② ㉡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녹지는 점점 줄어들고 공기는 혼탁해지며' 로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③ ㉢은 목적어가 빠져서 비문이 되었어. 앞에 '환경 파괴 행위를' 을 넣어 주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거야.
④ ㉣은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⑤ ㉤은 '뒷받침해야' 로 바꿔야 전체 문장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

3. 〈보기〉는 '속담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의식 구조'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하여 모은 글감이다. 활용 방법이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
(라)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마)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① (가),(마)를 들어서 투철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② (나)를 들어서 독립심을 권장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③ (다),(라)를 들어서 일을 느긋하게 처리하려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④ (바)를 들어서 소극적인 사고와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⑤ (사)를 들어서 낙천적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4. 다음 표는 우리 나라의 자살률과 평균 수명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와 어울리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연도	자살률(명) 〔인구 10만 명당〕	평균수명(년)
1996	12.9	73.96
1997	13.1	74.39
1998	18.5	74.97
1999	15.2	75.55
2000	13.7	76.04
2001	14.6	76.53
2002	18.1	77.00

① 갑 : 자살률이 1997년~1998년, 2001년~2002년 기간에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을 : 우리 나라 평균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병 :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주로 노인 자살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④ 정 : 자살률은 평균수명 외에 다른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⑤ 진 : 큰 사회적 변수가 없는 한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5. 〈보기〉는 〔이르다〕에 대한 사전 풀이이다.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보 기〉

〔이르다1〕
〔동사〕『…에』 1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착하다.
　2 ⓐ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동사〕— i 『…에게 …을』『…에게 -고』
　1 무엇이라고 말하다.
　2 =타이르다.
　3 미리 알려 주다.
　4 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ii 『…을-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주로 '이르기를' 이나 '이르되' 꼴로 쓰여} 책이나 속담 따위에 예부터 말하여지다.
〔이르다2〕
〔형용사〕『…보다』『-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① 영화가 시작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②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른다.
③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죽음에 이르고야 말았다.
④ 자정에 이르러서야 형이 집에 돌아왔다.
⑤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설악산의 꼭대기에 이르렀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정(家庭)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깐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십구 문 반(十九文半)
내 신발은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 문 삼(六文三)의 코가 납짝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 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憐憫)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십구 문 반.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슬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나) 폭포(瀑布)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斷末魔)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直立)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그대 아는가.
석탄기(石炭紀)의 종말을
그 때 하늘 높이 날으던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墜落)을.
나의 자랑은 자멸(自滅)이다.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盲目)의 눈보라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하리

* 푸시엣 : 야생(野生)의

6. 다음 중 (가)~(다)의 공통점으로 추측하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세 작품 모두 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세 작품에는 모두 시적 화자가 가상적인 청자(聽者)를 상정하고 있다.
③ 세 작품 모두 구성상 일종의 서사적인 줄거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세 작품의 작자는 모두 현실 상황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세 작품 모두 삶의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보기〉는 ㉣에 대한 해석이다. 이와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시어를 (나)에서 고른다면?

〈보 기〉

임금의 친족인 벽계수(碧溪水)가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황진이를 한번 보면 침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늘 큰소리 친다는 말을 듣고 황진이가 시험해 보려고 개성 구경을 청했다. 벽계수가 나귀를 타고 달밤에 송악산 만월대에 이르니, 소복 차림한 미인(황진이)이 벽계수를 쳐다보며 이 노래를 부르는지라, 벽계수가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도 모르게 나귀 등에서 내렸다 하여, 이 노래를 '벽계수 낙마곡' 이라 부른다.

초장의 '청산' 은 영원이 변함없는 자연을 나타내며, '벽계수' 는 순간순간 쉬지 않고 변해 가는 인간의 삶을 뜻한다. 한번 늙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잠시라도 영원을 간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내용이다.

초장의 '벽계수' 는 맑은 시냇물과 왕족인 벽계수를, 중장의 '명월' 은 밝은 달과 황진이 자신을 의미하는 중의법으로 사용되었다.

① 등판　② 벼랑　③ 하늘
④ 눈보라　⑤ 폭포

8. ㉡육 문 삼(六文三)과 관련지어 추론할 때, ㉠십구 문 반(十九文半)의 시어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 바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발언은?
① 시적 화자는 생활 전선에 뛰어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가장(家長)의 왜소함을 표현한 거야.
② 시적 화자는 한 가정을 보살펴야 하는 가장(家長)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어.
③ 시적 화자는 가장(家長)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어.
④ 시적 화자는 가난한 생활에 대한 가장(家長)으로서의 미안함을 드러내려 하고 있어.
⑤ 시적 화자는 험한 세파(世波)와 맞서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가장(家長)으로서의 다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9. 다음 중에서, ㉢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내 마음은 호수(湖水)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玉)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② 물 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 산을 바라본다.
③ 오늘도 메 끝에 홀로 오르니 /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④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謙虛)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악기 계통의 악기는 흔히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활로 악기의 줄을 마찰해서 소리를 내는 찰현 악기(擦絃樂器, bowed string) 계통이요, 다른 하나는 악기의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 발현 악기(撥絃樂器, plucked string) 계통이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 음악에서는 이들 두 가지 계보의 현악기 중에서 유독 거문고나 가야금 같은 발현 악기만을 정통적인 현악기로 간주하고, 해금이나 아쟁 같은 찰현 악기는 관악기로 취급해 왔고, 실제 악기 편성에서도 해금은 완전히 관악 파트로 간주하는 것이 관행이다.

우리의 선인들, 특히 선비 계층에서는 발현 악기인 거문고를 유달리 선호했는데, 이는 발현 악기가 숙명적으로 지니게 마련인 '음악적 여백' 을 한층 높이 ㉠샀기 때문이다. 음악적 여백이란 곧 구체적으로는 음향적 휴지(休止)를 의미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고 보면 실로 우리의 발현 악기가 연출해 내는 음향적 휴지는 대단한 바가 있다. 특히, 차분한 분위기의 정악, 그 중에서도 상령산이나 이삭대엽 같은 느릿한 음악을 독주할 때의 거문고나 가야금 같은 발현 악기는, 어쩌면 음향이 지속되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잔향이 없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음향적 공백 기간이 더 길 정도로, 마치 육중한 침묵의 공간에 놓은 음표의 징검다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실제의 음표가 소리로 재현되는 시간에 비해서 음향적 공백인 휴지의 시간이 두드러지게 부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의미 심장하게 치부되는 사실은 그대로 선인들의 음악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우리만의 음악적 특성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 음악이라고 발현 악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프나 기타, 만돌린 등이 대표적인 발현 악기들이다.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도 발현 악기와 마찬가지로 음을 길게 지속시킬 수 없었지만, 이 악기가 널리 쓰이던 바로크 시대 음악은 실제로 휴지 부분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현란한 장식음이 더 많이 나타난다. 지속음이 안 되고 소리가 끊기는 부분에서는 우리처럼 그 소리의 공백 부분을 음미하려 들지 않고 여러 가지 꾸밈음으로 여백을 채워 넣은 것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곧, 서양 음악에서의 휴지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이었지 우리의 그것처럼 본질적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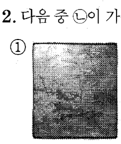
우리의 선인들이 거문고와 같이 음을 길게 지속시키지 않는 발현 악기를 선호했다는 사실은 곧 그림에서 여백의 무한한 환상성을 완상하듯 음악에서도 소리의 공백인 ㉡휴지부의 무한한 신비성을 음미하기 위한 기막힌 예술적 감각의 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양화에서 시각적인 실체를 하나의 예술적 조월의 전기로 삼고는 이내 아무 형체도 없는 여백의 세계에서 무한한 환상의 나래를 펼쳐 갈 수 있듯이, 발현 악기가 내는 둔탁한 음 하나하나의 진정한 기능이란, 곧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리의 공백에서 우리의 예술적 상상력의 무한 공간으로 확산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촉매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음악은 반드시 청각적 소리를 전제로 한다는 서구적 공식에 투철한 안목으로는 논리의 비약이요 억지라고 여기겠지만, 우리의 예술적 맥락과 특성을 조금만 참작해 보는 입장에서라면 쉽게 수긍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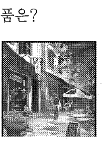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우리는 발현 악기에 나타나는 음악적 휴지야말로 우리네 고유의 명상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심금(心琴)을 울려 내는 가장 우리적인 심악(心樂)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심오한 음악적 슬기는 특히 음향적 공해랄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소리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에서 재음미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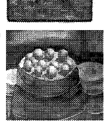
10.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서양에서는 발현 악기의 휴지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② 해금은 실제로는 현악기이지만 일반적으로 관악기로 취급되어 왔다.
③ 우리 음악에서 발현 악기를 선호한 이유는 우리 그림에서 여백의 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음악적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우리 음악의 휴지적 요소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⑤ 우리 선인들도 음악적 휴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양인들의 음악에 대한 생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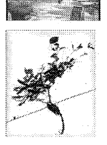
11. ㉠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 않느냐?
② 일꾼이라도 사서 오늘 안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③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을 높이 사고 싶다.
④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쌀을 팔아 돈을 샀다.
⑤ 그런 짓을 하면 남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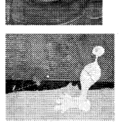
12. 다음 중 ㉡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은?

①


②


③


④


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梨花(이화)에 月白(월백)ᄒᆞ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 제,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냐마ᄂᆞᆫ,
多情(다정)도 〔病(병)〕인 양ᄒᆞ여 좀 못 드러 ᄒᆞ노라. - 이조년

(나) 어리고 성긘 梅花(매화) 너를 밋지 아녓더니,
눈 期約(기약) 能(능)히 직혀 두세 송이 퓌엿고나.
燭(촉) 줍고 갓가이 ᄉᆞ랑헐 제 暗香(암향)좃ᄎᆞ 浮動(부동)터라.
- 안민영, 매화사

(다) 窓(창) 내고쟈 窓(창)을 내고쟈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쟈
고모장지 셰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쟝도리로 뚝닥 바가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쟈.
잇다감 하 답답ᄒᆞᆯ 제면 여다져 볼가 ᄒᆞ노라. - 작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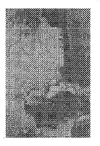
(라) 한숨아 셰한숨아 네 어ᄂᆡ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ᄌᆞ 셰술장ᄌᆞ 가로 다지 여다지에 암돌쩌귀 수돌쩌귀 빅목걸시 뚝닥 박고 龍(용)거북 ᄌᆞ물쇠로 수기수기 ᄎᆞ엿는듸 屛風(병풍)이라 덜걱 져븐 簇子(족자)ㅣ라 ᄃᆡᄃᆡ글 만다 네 어ᄂᆡ 틈으로 드러 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좀 못 드러 ᄒᆞ노라. - 작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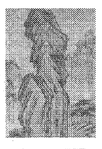
(마) 岐王(기왕)ㅅ 집 안해 샹녜 보다니,
崔九(최구)의 집 알픠 몃 디윌 드러뇨.
正(정)히 이 江南(강남)애 風景(풍경)이 됴ᄒᆞ니,
곳 디논 時節(시절)에 또 너를 맛보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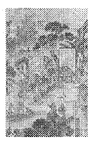
岐王宅裏尋常見(기왕택리심상견)
崔九堂前幾度聞(최구당전기도문)
正是江南好風景(정시강남호풍경)
落花時節又逢君(낙화시절우봉군) - 두보, 강남봉이구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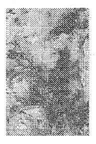
13.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가)의 〔病(병)〕과 그 내재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누은들 좀이 오며 기드린들 님이 오랴.
이제 누어신들 어ᄂᆡ 좀이 ᄒᆞ마 오리
출하리 안즌 곳에셔 긴 밤이나 새오자.
② 묏버들 골ᄒᆡ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ᄃᆡ,
자시ᄂᆞᆫ 창(窓) 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예 새닙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③ 이시렴 브ᄃᆡ 갈짜 아니 가든 못홀쏜냐.
무단(無端)이 슬튼야 ᄂᆞᆷ의 말을 드럿는야.
그려도 하 애도래라, 가는 ᄠᅳᆺ을 닐리라.
④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야 넉시라도 잇고 업고.
님 향ᄒᆞᆫ,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싈 줄이 이시랴.
⑤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물(景物)이 달랏고야.
압희는 천경 유리(千頃瑜璃) 도라본이 만첩 옥산(萬疊玉山)
선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ᄒᆞ여 흥(興)을 계워 ᄒᆞ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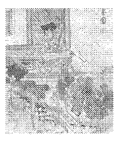
14. 다음 중,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의 상황이 (나)와 일치하는 작품은?

①


②


③


④


⑤


15. (다)의 화자가 (라)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① 둘 사이에서 방황하기보다 한 사람을 분명하게 선택하세요.
② 한숨 쉬고 고민할 바에야 마음의 창을 닫고 본성을 지키는 게 낫죠.
③ 사람과 부대끼며 생겨나는 번뇌를 끊어야 완전한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④ 자기의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더 매력적이지요.
⑤ 사람을 만나 고민하고, 그 고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괴로운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16. 〈보기〉를 참조하여 (마)를 모티프로 한 연극 대본을 창작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기왕' 과 '최구' 는 당나라 현종 때의 세도가들로, 당대의 인기 가수 '이구년' 을 초대하여 그가 부르는 노래를 즐겨 들었다. 따라서 '이구년' 은 단순한 한 사람의 가수가 아니라 전성

SKYEDU
World Leading Education Group

스카이에듀의 모든 스타강사가 총동원되어 직접 출제하고 해설하는 서비스
동아일보와 스카이에듀가 야심차게 준비한 수능 Final Project

동아일보와 스카이에듀가 함께하는
수능 전 꼭 풀고 가는
Premium Final Test

What is Premium Final Test?
1. 동아일보 구독자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2. 스타강사가 총동원되어 직접 출제한다.
3. 문제를 집필한 스타강사가 직접 해설강의를 제공한다.
4.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스카이에듀 스타강사의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은 일부 과목의 문제만 수록되어 있으며,
전 과목의 문제는 www.skyedu.com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skyedu.com